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D-28

"우리도 뛴다"

앞줄 왼쪽부터 이정호, 박수현, 박병열 상임부회장, 정건철 사무처장, 정현숙. 가운데 왼쪽부터 박경채, 남기수, 정회진, 이행구, 김상민. 뒷줄 왼쪽부터 조신영, 공갑석, 안요섭, 이승혜, 김용봉.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전국체전 상위권 도약 결의 다지며

■ 전남도체육회

"2008년 전남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데 전남체육이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전남도체육회 직원들이 2008년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개최지 이점을 안고 종합우승의 위업을 이루기 위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 출사표를 냈다.

전남은 그동안 한 자릿수 등위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해 왔으나 2008년 개최지 이점을 안고 상위권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박병열(56) 상임부회장은 "광주·전남 분리 이후 광주나 전남 모두 상위권에서 멀어졌는데 2008년 전남전국체전에서는 반드시 옛 영광을 재현하며 종합우승까지 욕심을 내보겠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시·도민들과 함께 뛰는 광주일보 3·1절마라톤대회에 도체육회 직원들이 모두 참여해 2008년 전남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 것을 홍보하고 2008년전국체전을 역대 최고의 체전으로 만들기 위한 자세를 가다듬을 계획이다.

내년 전남체전 홍보도 곁들여

박 부회장은 애연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건강을 걱정하고 있지만 평소 속보와 스트레칭으로 체력을 다져왔기 때문에 5㎞ 정도는 문제없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직원들도 박 상임부회장이 이번대회에 반드시 완주를 하겠다고 나서자 혹시 중간에 탈락하거나 완주를 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부담감 때문에 퇴근 후 컨디션 조절에 나서고 있다.

27년간 전남도 체조팀 감독을 역임한 정건철(62) 사무처장은 평소 40대 후반으로 보일 정도로 젊은이 못지 않은 근력과 체력을 자랑하고 있어 10㎞는 가볍게 완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육인이자 시인인 정 처장은 제자리 물구나무 서기와 안마 동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함과 근력을 자랑한다. 전 국가대표 육상 단거리 선수였던 김상민(51)훈련부장은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평소 다져온 체력이 있기 때문에 5㎞ 상위입상을 노리고 있다.

62세 정건철 사무처장 10㎞ 도전

김남기(58)운영부장은 주말마다 등산을 통해 다져온 체력을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용봉(58)총무부장도 매주 산행과 낙천적 사고방식으로 건강을 지키고 있어 5㎞는 문제없다는 입장. 두주불사의 정회진(37)씨와 언론인 출신 공갑석(42)씨는 각각 만능스포츠 맨으로 내년에는 하프에 도전할 계획. 도민체전 장흥군 축구 대표 출신의 이행구(43)씨는 전남체육회 공식 체력 1위를 표방할 정도이며 안요섭(34)씨도 헬스로 건강을 지키고 있어 등위 다툼을 벌이지 않을까 행복한 고민.박경채(36)씨는 수영 지도자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다 유도선수 출신으로 주위에서 하프를 권할 정도. 야구선수 출신의 이정호(41)씨와 축구광 남기수(45)씨도 평소 꾸준히 몸관리를 하고 있어 이번대회에서 입상을 기대하고 있다. 이승혜(여·32)씨와 정현숙(여·33)씨는 체육회 직원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최근 인근 학교에서 속보등으로 체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막내 박수현(여·27)씨는 자천타천 16개 시·도 체육회 직원중 최고의 댄서로 평가받을 정도의 춤실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대회에서 건강미인(?)의 체력을 보여줄 계획. 조신영(29)씨는 광주 상무 불사조에서 근무하면서 익힌 축구와 탁구, 배드민턴 등을 통해 다져온 체력을 자신하고 있다.

박 상임부회장은 "시·도민들과 함께 달리며 2008년 전남전국체전의 성공개최 의지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동국 몸상태 확인 후 출전 결정"

미들즈브러 사우스게이트 감독

"전체적으로 몸 상태를 확인해보고 결정하겠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미들즈브러의 가레스 사우스게이트(37) 감독은 선수단에 합류한 이동국(28)의 컨디션을 면밀히 체크한 뒤 2월4일 오전 4시15분(이하 한국시간) 리버사이드 홈구장에서 열리는 정규리그 아스널전 투입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들즈브러 구단 홈페이지는 이동국을 35명의 선수단 리스트에 '등번호 18번, 스트라이커'로 등록하고 자세한 프로필을 실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지난 주 록리프 훈련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컨디션이 좋았다. 하지만 입단 절차를 밟느라 한 주 쉬었다. 장시간 비행으로 쌓인 여독이 얼마나 풀렸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한국대표팀과 경기를 해봐서 아는데 그들은 체력적으로 뛰어나다.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본다"고 덧붙였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2002 한·일월드컵 축구 직전 잉글랜드 대표팀의 일원으로 방한해 당시 히딩크호와 평가전을 치른 적이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헐값에 이적' 거물 스타들 "아! 옛날이여"

호나우두 AC밀란행 91억원

3차례나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상을 거머쥐었던 삼바 축구 간판 스트라이커 호나우두(30·레알 마드리드)가 '헐값'에 이탈리아 세리에A AC 밀란으로 이적했다.

지난달 3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호나우두는 AC 밀란과 2008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 계약하며 5년여 만에 이탈리아 리그로 복귀했다.

하지만 '몸 값'은 뚝 떨어졌다. 2002년 인터밀란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때 호나우두는 4천500만 유로(약 550억원)라는 천문학적 이적료를 기록했지만 이번에는 6분의 1 수준인 750만 유로(약 91억원)에 그쳤다.

다만 AC 밀란은 올 시즌 또는 다음 시즌에 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진출할 경우 50만 유로를 추가로 지불하기로 했다.

새미 소사 텍사스행 5억원

미국프로야구의 슬러거 새미 소사(39)가 결국 50만 달러라는 헐값에 친정팀 텍사스 레인저스와 마이너리그 계약했다.

스포츠전문 케이블 채널 ESPN은 31일 인터넷판에서 소사가 텍사스와 50만달러에 마이너리그 계약했으며 빅리그에서 주전 자리를 확보하면 200만달러를 더 받는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옵션 200만달러는 출장 경기수와 타석수에 따라 결정되며 소사가 올해의 재기 선수상 또는 다른 상을 수상할 경우 250만달러 이상을 손에 쥘 수 있다.

텍사스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소사는 스프링캠프에서 기량을 인정 받을 경우 빅리그에서 주로 지명타자로 5번 타순에 기용될 전망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베어벡호' 내일 출국
7일 그리스와 평가전

오는 7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에서 그리스와 새해 첫 A매치를 치르는 베어벡호 태극전사들이 다음달 2일 출국한다.

축구대표팀 이원재 홍보부장은 "국내에서 훈련을 해 온 국내파 7명에 해외파 중 한국에 머물고 있는 조재진, 김정우, 이호까지 총 10명이 다음달 2일 오전 11시 인천공항에 모여 홍명보 코치와 함께 런던으로 출국한다"고 31일 밝혔다.

핌 베어벡 감독을 비롯해 압신 고트비 코치, 코사 골키퍼 코치 등 나머지 코칭스태프와 국내파 가운데 터키와 스페인 등지에서 소속팀 해외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들은 런던에서 현지 합류할 예정이다.

올 PGA 마스터스 골프대회
최경주·양용은 출전권 획득

2007년 마스터스골프대회가 열릴 오거스타 내셔널골프장을 밟게 될 '골프 명인'들이 정해졌다. 마스터스대회를 주관하는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골프장은 지난달 31일(한국시간) 올해 대회 출전 자격을 갖춘 100명 명단을 공개했다.

'꿈의 코스' 내셔널 골프클럽을 밟게 될 이들은 역대 대회 우승자, 최근 5년간 메이저대회 우승자, 최근 2년간 플레이어스챔피언십 우승자, 2006년 PGA 투어 상금랭킹 상위 40명, 2006년 세계랭킹 상위 50명 등이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망라된 가운데 '한국산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와 양용은(35)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스포츠주개

1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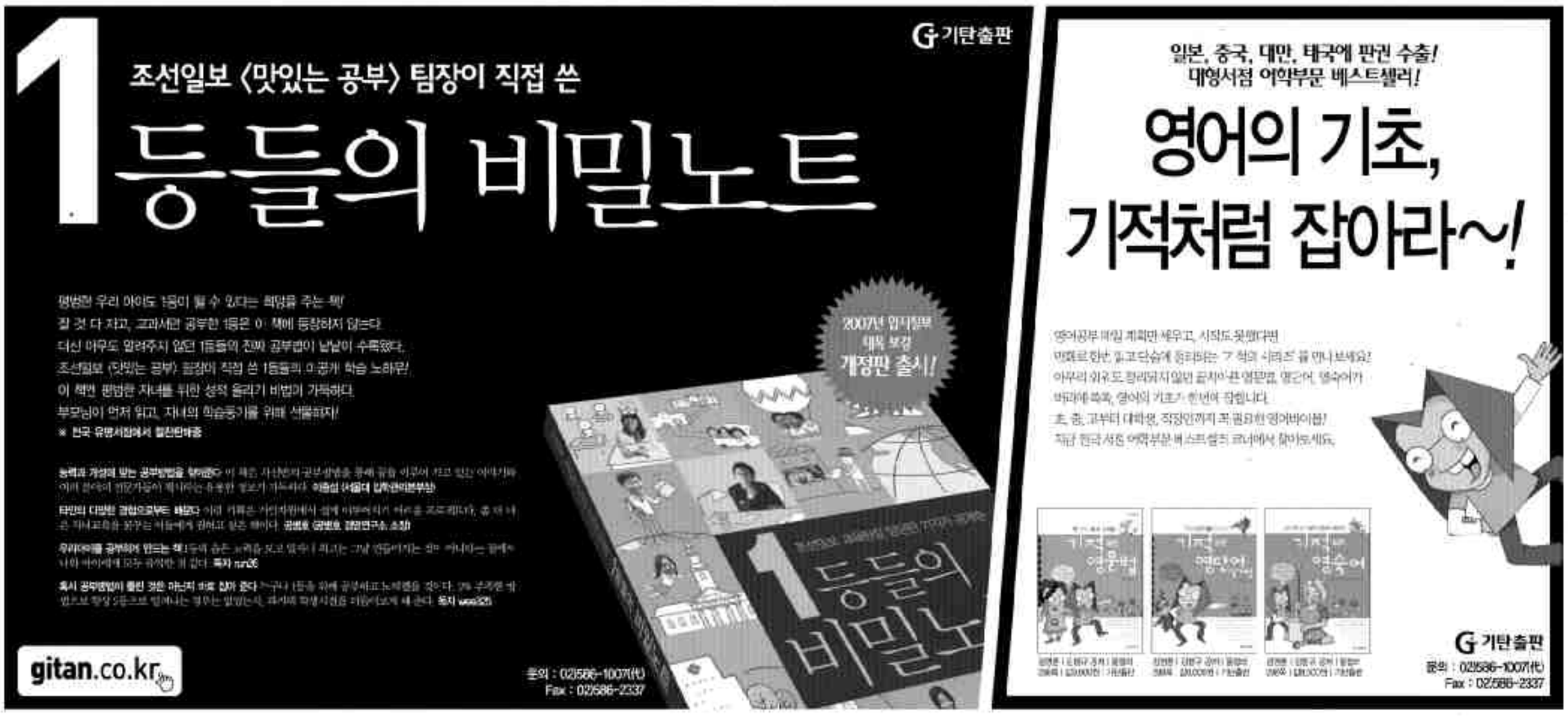
▲NBA〈보스턴-LA레이커스〉(09 : 20·SBS스포츠)

▲제6회 경남고성 전국마라톤대회(13 : 50·MBC)

▲여자프로농구 겨울리그〈KB국민은행-금호생명〉(13 : 50·SBS스포츠)

▲대학장사씨름대회 6차대회 소장급(14 : 00·MBC ESPN)

▲V-리그〈삼성화재-상무〉(18 : 40·KBSN Sports)

2일(금)

▲PGA투어 FBR 오픈 1R(05 : 00·SBS스포츠)